

##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기관소개와 해외건설 지원방안



문정호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 I. 서론

지난 수년간 해외건설 부문이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해외건설 지원과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올해 4월에 발표한 2014년 해외건설 지원방안은 해외건설수주 70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한 양적성장과, 리스크 관리지원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해외건설의 질적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sup>1)</sup>. 과거와 달리, 해외건설 수주 지원 방안은 협력국을 대상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연수, 특정분야 지식공유 등 양자 ODA를 기반으로 양국 간의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건설 지원 정책의 다변화에는 건설업계 및 건설업 관련단체 뿐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도 다소나마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국토·지역·도시 정책 및 계획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GDPC)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GDPC는 2010년 1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협력대상국(개발도상국)에 대해 다양한 초청연수·정책자문·지식공유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설·인프라 분야의 정책경험공유사업 추진을 강화하여 국내기업의 해외건설 진출과 관련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국내기업의 해외건설 진출 기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 II.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사업 및 성과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비전은 'The Champion of Global Territorial Planning and Policy Network'으로, 개발도상국의 국토·도시계획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 정립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주요 전략으로는 ① 글로벌 국토연구 및 정보의 허브기능 강화, ② 국토연구의 글로벌 교류·협력을 강화 ③ 원내 국제협력 연구사업의 확대와 공조체계 구축, ④ 국제원조규범형성에 적극 참여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GDPC는 개도국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과 개발을 위한 제반제도 및 조건개선, 양국간 협력관계 조성 및 상호교류 확대를 추구한다.

GDPC의 주요수행업무는 다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정책자문 및 지식공유, 둘째, 개발도상국의 인적역량 강화 지원, 셋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개발협력 공동연구, 넷째,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내외 우수기관과의 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형성, 마지막으로 국내기관 국제화 역량강화 지원 등이다. 이들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정책자문 및 지식공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정책자문 및 지식공유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정책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지식

1) 국토교통부 2014년 해외건설추진계획 참조. 이러한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2013년 동기에 비하여 2014년 현재 계약금액이 24% 증가하는 등(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통계, <http://www.icak.or.kr> 참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을 공유하고 정책 자문을 제공함을 목표로 한다. 추진전략은 협력대상국의 현실과 Value for Money를 고려한 ① 국토 인프라 개발관련 경험 및 정책자문 수행, ② 정책 수립 및 집행 프로그램을 개발, ③ 해외 투자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국익창출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업무수행은 개념화과정→기획과정→시행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개념화과정을 통해 협력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적절성을 강화하고, 기획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최적화된 개별사업을 형성하여, 시행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경험전수가 이루어진다. 이 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세계은행 도시화지식플랫폼(UKP) 아카데미 프로그램 (2014), 고이아니아 도시통합관제센터 시범 구축을 위한 기술지침서 설계 (2013), 아프리카·아시아 2개국 서민주택개발 정책 툴킷 개발 (2013) 등이 있다.

## 2. 개발도상국 인적역량 강화 지원

개발도상국 인적역량 강화 지원업무는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총 65개국 714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업무의 목적은 한국의 국토 및 지역개발경험을 공유하여 협력국의 인적자원개발 및 개발과제 대처능력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더불어, 연수 참가자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국토 및 지역 계획, 국토 인프라 및 도시개발 정책, 토지 및 주택 개발 관련 금융 등을 주제로 하여 대상 공무원에 따라 수준을 차별화 하여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연수 과정은 <표 1>과 같이 총 네 단계로 진행되며 협력국 공무원과의 쌍방향식 연수를 이행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KOICA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 3개년 (중남미) 과정 (2013-2015), 고위공무원 및 주한공관원 인프라 초청연수 (2014-2015) 등이 있다.

표 1. 연수진행과정 (표준)

단계	세부내용
1단계. 오리엔테이션	한국 및 국토연구원에 대한 이해를 제고
2단계. 강의·실습·현장견학	한국의 국토개발경험 및 전문성을 공유
3단계. 액션플랜 수립	연수내용을 기반으로 자국 적용방안을 검토
4단계. 연수평가	참가대상자의 연수과정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 3.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개발협력 공동연구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개발협력 공동연구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개발협력 정책 수립 및 지원방향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전략은 첫째, 한국의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발전경험을 정례화 하고 개도국 적용 방안 도출, 둘째, 해외 유관 기관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개발협력 정책을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분야의 주요성과로는 해외건설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다자개발은행 현황조사 (2014) 개발도상국 국토분야 계획 수립 현황 조사 및 분석 연구 : 중남미 3개국을 중심으로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2013),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위한 국토건설 분야 ODA 프로그램 선정 (2012), 한국의 토지개발 및 관리 관련법제 연구 (2012) 등이 있다.

## 4. 국제기구 네트워크 확대 및 협력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국제기구와 사업추진은 미약하나 개발의 지가 강한 개발도상국 국가를 선정하여 삼각협력을 수행, 원조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협력국과 공유하는 것 외에 국제기구의 개발전문성을 활용 및 원조 집행비용 절감 등의 추가적인 장점을 갖는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다자개발은행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와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협력국의 새천년개발 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달성과 국가개발계획 (National Development Plan, NDP) 및 빈곤감소전략 (Poverty Reduction Strategy, PRSP) 이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원조의 단기적 목표인 효율성 및 효과성 달성 외에도 중·장기적 목표인 개발사업의 영향력과 지속가능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사업성과로는 국토연-세계은행-서울시 주최 메트로랩 국제협력포럼 (2014), 국토연구원-세계은행 스리랑카 전략적 도시 계획 프로젝트 수행 (2013-2014), 국토연구원-IDB South Korea Affordable Housing Policies : Lessons for LAC Countries (2013-2015) 가 있다.

## 5. 국내기관 국제화 역량강화지원 사업

이 사업은 국내 파트너기관인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및 유관 협회 관계자의 국제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011년부터

2014년 현재, 총 30차례에 걸쳐 글로벌개발협력포럼을 개최, 개발협력 및 국내기업의 해외건설 진출방안과 관련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또한 인적네트워크를 포함하여, 교육연수 및 정책자문을 통해 수집한 해외개발정보 및 국제조달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기적으로 글로벌개발협력 아카데미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MDB 사업 수주 방안, 해외인프라 금융 등과 관련한 특강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번역단행본 ‘한국의 지역개발 갈등과 관리방안’, ‘지식공유 콘텐츠(모듈화)’, ‘개발시대 한국의 토지법’ 등을 영문판으로 발간하여 한국의 국토개발 경험을 공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III. GDPC 향후 운영 방향 및 해외건설 지원 방안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향후에도 앞에서 기술한 5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균형화된 글로벌 개발협력에 기여 하고자 한다. 다만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국토연구원의 국토개발경험과 지식을 협력대상국과 공유하기 위한 협력대상국과의 협의 확대 및 이해 제고, 국내 해외 건설 진출 관련 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을 실현코자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 협력 진출을 강화하고 협력국의 빈곤감소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전략적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정책자문 및 지식공유 사업 수행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정책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지식을 공유하고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개발도상국 인적역량 강화 지원업무를 통해 한국의 국토 및 지역개발경험을 공유하여 협력국의 인적자원개발 및 개발과제 대처능력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개발협력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개발협력 정책 수립 및 지원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넷째,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내외 우수기관과의 협력 사업 및 네트워크 형성하여 한국의 개발경험을 협력국 및 해외 우수기관과 공유, 국제기구의 개발전문성 활용 및 원조 집행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한다. 다섯째, 국내기관 국제화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통하여 국내 파트너기관인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및 유관 협회 관계자의 국제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즉, 지속적으로 글로벌개발협력포럼(월례), 글로벌개발협력 아카데미 및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국토개발 관련 영문 단행본 및 시리즈를 발간하여 한국의 국토개발경험을 공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해외건설은 단순히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수주활동에만 국한되는 영역이 아니다. 해외건설은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변곡점마다 위기 돌파의 첨병 역할을 독특히 해 왔다.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도 지속적인 양적 성장으로 수출 증대와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양적인 측면보다 보다 지속가능한 질적인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증폭되고 있다. 단순도급형 시공사업의 경우 시장의 과다경쟁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 사업비용 증가 등 고비용 저부가가치 시장으로 시장의 매력도가 매우 낮아 국내 기업의 참여 및 의지가 줄어들고 있다. 다자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및 외국에서 직접 발주하는 건설분야 수주가 증가하고 있지만, 설계, 시공 등 후속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소수 대형 건설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견 및 중소 건설·엔지니어링·건축설계 기업들은 외국 현지 정책결정자, 국제기구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취약하고,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계가 있다.

국토연구원의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직접적인 해외건설 수주지원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방식의 기반 구축을 담당하는데 더욱 힘쓸 것이다. 즉, 다양한 초청연수·정책자문·공동연구·정책경험공유 사업 등을 통해 구축된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구와의 인적, 정책적 네트워크를 우리 해외건설 기업과 공유할 것이다. 또한 건설·인프라 분야의 정책자문 사업을 보다 활발히 전개하고, 지금까지 30회를 이어온 글로벌개발협력포럼 등의 국내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하여 글로벌 기업이나 중국, 유럽의 해외건설기업 같이 타당성조사, 금융, 설계, 시공, 관리 등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애쓸 것이다.